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예 경 회\*

## Differential Strategy of Cul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Jung-Won Cultural Region

Yeh, Kyong-Hee\*

**요약** :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중원문화권은 충주문화권, 청주문화권, 집이문화권 등의 3대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10개의 아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아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을 상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상징적 문화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으로 특화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1) 충주권: 역사·문화권(탑평리 7층 석탑), (2) 제천권: 의병문화권(의병장 유인석), (3) 단양권: 고구려 문화권(나대산성), (4) 청주권: 교육·문화권(직지와 칠당간), (5) 보은권: 불교문화권(속리산 법주사), (6) 옥천권: 나제문화권(나제전투), (7) 영동권: 삼도통합 문화권(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 (8) 음성권: 선비정신 문화권(무극 6. 25 사변 전적비), (9) 괴산권: 유교문화권(우암 송시열), (10) 진천권: 삼국통일 정신문화권(김유신 장군).

**주요어** : 문화재, 문화지역, 아문화지역, 상징, 개발전략.

**Abstract** : According to cultural characteristics, Jung-Won cultural region are divided 10 sub-regions. These regions must be highlighted cultural image as core symbols and created new and regional culture to differentiate development strategy of cultural resources: (1) Chungju: historical and cultural region(stone pagoda of Tap-Pungri), (2) Zechun: cultural region of the righteous soldiers (captain Yu, In-Suk), (3) Donyang: cultural region of Gogurue(mountain castle of On-Dal), (4) Chongju: educational and cultural region(Zikzi and Chull Dandgan), (5) Boeun: cultural region of buddhism(Bupzoo temple,) (6) Okchun: cultural region of Silla and Bakje(war of Silla and Bakje), (7) Yongdong: cultural region of three provinces(harmony monument stone of Samdobong), (8) Eumsung: cultural region of scholar spirit(Monument of 6. 25 war), (9) Goessan: cultural region of confucianism(confucianist Song, Shi-Reull), (10) Zinchun: cultural region of Sam-Guk unification spirit (general Kim, You-Shin).

**Key word** : Cultural resource, Cultural region, Cultural sub-region, Symbol, Development strategy.

###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문화유산의 발굴과 홍보에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문화유산을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용조(1995, 15-59)에 의하면 1981년 정부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일원의 신라문화를

담당하는 신라문화권, 백제의 옛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공주의 웅진성/ 부여의 사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호서/호남지역의 백제문화권, 경남 일대의 가야문화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문화권,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 등의 5대 고도(古都) 문화권을 설정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00년의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2000~2020)』(31-33)에 의하면 문화관광권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등의 7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충청권은 백제문화권과 중원문화권, 대구·경북권은 신라문화권과 안동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문화

\*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khyeh@chongju.ac.kr)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길경택(1993, 9)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은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지역으로서 1982년 정부차원에서 중원문화의 특성을 규명할 목적으로 중원문화권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청주의 신봉동 백제 고분군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중원 누암리 고분군, 충주 용관동 고분군, 청주 송정동 유적 등의 발굴과 상당산성의 복원, 단양의 온달산성의 발굴과 적성산성의 복원, 보은 삼년산성의 발굴과 복원 등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수봉(1995, 323-324)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의 핵심지역인 충주권 개발도 수안보와 충주호 등을 연결하는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착수되었지만 1994년 가금면 중앙탑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을 뿐 아직도 본격적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충청북도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충북일원에 걸쳐 있는 중원문화권의 발전방향과 개발의 차별화에 방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중원문화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2) 안동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 등의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상징적인 이미지의 차별화 방향을 수립하며, (3) 중원문화권을 크게 충주문화권, 청주문화권, 점이문화권 등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10대 아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아문화권별 문화재 개발방안을 살펴봄으로써, (4) 아문화권의 문화적인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중원문화권의 형성과정과 특성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원문화의 형성과정을 고

찰하여 중원문화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중원문화권의 형성과정

김영진(1995, 315)에 의하면 중원문화의 역사적인 문화의 층위는 고대에는 한강수계의 북방문화, 금강수계의 남방문화 등을 기층문화로 하고 있고 북방문화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문화의 국원경 문화, 통일신라시대에는 중원경문화, 고려시대와 조선기대에는 충주목 문화 등을 누층문화로 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충주문화를 중심으로 충주지역문화를 표층문화로 하고 있고 남방문화는 삼국시대에는 남비성 문화, 통일신라시대에는 서원경문화, 고려시대-조선시대에는 청주목 문화 등을 누층문화로 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청주지역문화를 표층문화로서 발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중원문화의 역사적인 문화의 층위에 입각한 충북지역문화의 설명은 중원문화권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모형이라고 생각된다.

1992년의 『충청북도지(상)』(148)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구석기 문화의 유적지는 금강상류의 청원군의 두루봉 동굴과 샘골유적, 금강하류의 공주 석장리와 마암리 동굴 등의 금강유역과 제천시 점말동굴과 창내, 큰길가 유적과 단양군의 수양개, 금굴, 상시, 구냥굴 유적 등의 남한강상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충주댐 수몰지구의 유적발굴사업으로 단양지구에서 다량의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단양이 구석기문화의 보고로 알려져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용조(1995, 40)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의 선사문화는 시대별로 독특한 양식과 특징, 형식 등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문화, 백제문화, 가야문화 등의 왕조중심 이전의 문화로서 우리나라의 기저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선사문화가 중원문화의 중심과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다.

1992년의 『충청북도지(상)』(171)에 의하면 충주 지방은 삼한시대에 들어와서는 마한의 영토였으나 그 후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의 삼국이 각기 성장·발전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삼국세력의 각축장이 되었고 쟁탈의 대상지역이 되었던 지역은 남한강상류의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의 북부지역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의 남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의 상류지역은 고구려와 백제 또는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던 곳으로 「중원 고구려비」, 단양의 「단성 적성비」, 「온달산성」 등의 유적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해 주는 귀중한 문화재가 되고 있고 남부지역은 주로 백제와 신라 세력의 각축장으로서 보은의 삼년산성은 그 대표적인 유적이 되고 있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충주에 「중원경」을 설치하고 「탑평리 7층 석탑」을 건립하였으며 충주에는 「서원경」을 설치하고 「운천사 사적비」를 세워 통일의 위업을 기리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1984년의 김현길의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183-197)에 의하면 충주지역은 삼국시대에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삼국의 문화가 혼유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고려말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를 대신하여 성리학이 융성하여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낙향한 사대부들이 많이 모여 살아 사대부의 선비문화의 요람이 되고 있음을 충주지역에 세워진 수많은 신도비가 말해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시대 이후 충주지역은 남한강의 편리한 수운으로 문물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남한강 강변의 많은 조창과 산채한 수많은 산성과 불교문화의 유적 등이 있어 중원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충주지방에서는 악성 우륵, 문장의 강수, 명필 김생 등이 예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1997년의 『청주시지(상)』(167)에 의하면 청주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상당현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왕도인 경주에 통하는 통로가 있었고 북으로는 한강으로 통하였으며 서쪽

으로는 공주와 남양만 등 옛 백제가도 등에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미호평야 등이 있어 금강유역의 옛 백제지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주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주로 백제와 신라의 각축장이 되어 부모산성과 상당산성 등의 백제산성과 만뢰산성 등의 신라산성 등의 많은 산성유적이 남아 있고 우암산 일대를 비롯한 인근지역에는 철당간이 있는 용두사지, 흥덕사지, 운천사지 등에 사찰이 즐비하여 통일신라시대 이후와 고려시대는 불교문화가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6년의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흥덕사지 조사 보고서』(67)에 의하면 청주의 흥덕사에서는 고려 우왕 3년(1377년) 세계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고 조선시대에는 우암 송시열, 송강 정철 등의 유학자, 중봉 조현과 송상현, 의병 한봉수 등의 충신과 열사 등이 많이 배출되어 청주지역은 청풍명월의 양반의 고장으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한편 신형식(1995, 167-168)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의 핵심지역으로서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은 한강문화권(북)과 낙동강 문화권(남)의 접목지로서 새로운 문화의 창달과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문화결합에서 오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빈번한 북방문화의 남하에 따른 선진성과 남방문화의 복상에 수반되는 문화교류의 복잡성, 다양한 이질문화의 전개 과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배타성과 자기상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포용하는 문화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충주를 핵심지역으로 하는 중원문화권의 특색은 구석기 문화를 기저로 하고 있고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의 삼국의 접경문화가 한반도의 중심의 통합문화로 발전하여 새로운 융합문화를 형성하는 화합문화의 전초지로서 한국의 새로운 통합문화의 가능지역으로 볼 수 있다.

## 2) 중원문화권의 특성

### (1) 선사문화의 보고

이윤조(1995, 15-59)에 의하면 종래에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신석기 시대로 보았으나 1964년 공주 석장리 발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 손보기 교수팀과 충북대학교 이윤조 교수팀 등이 중심이 되어 중원지방이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의 보고임을 규명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결과 금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 동굴유적과 야외유적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중원지방이 선사문화 유적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고 특히 구석기유적이 함북 종성의 동관진 유적에서 남쪽으로 제주 빌레못 동굴유적의 발굴에 이르는 30개 중에 10개의 유적이 중원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구석기문화가 중원문화의 기저문화인 동시에 특성문화로서 세계 구석기학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중원문화지역을 충북으로 한정해도 중원문화권의 선사문화, 특히 구석기 문화는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5대 문화권과 7대 문화권 등에 들어 있는 신라문화권, 백제 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왕조중심의 역사시대 문화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 중원문화의 중심과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 (2) 삼국시대의 통합문화

이경식(2000, 37)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백제의 국경선은 충북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 산성은 충북의 서부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충북지역의 백제산성은 시계와 교동로 등을 중시하여 수로나 육로에 가까운 2k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험산에 축조되었는데 예를 들면 신라의 전방 전초기지인 옥천권의 고기산성(古己山城)에 대치하여 성터산성, 삼성산성, 환산성 등이 배치되었고 대왕산성과 낭비성은 교통로를 관망하기 위하여 축성되었으며 이성산성, 대모산성, 부모산성, 병마산성, 동림산성, 저산성 등은 미호천 일대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축성되었고 음성군 삼성면의 망이산성은 안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시계가 좋은 지역에 축성되고 있어 지역적으로 보면 청원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박상윤(2000, 81-85)에 의하면 고구려 산성은 신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충북의 북부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데 이것은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신라산성은 지역적으로 충북의 남부지역의 보은군과 한반도의 지리적 요충인 충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신라의 북진정책이 보은의 삼년산성과 충주의 한훤령을 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신라가 북쪽으로는 고구려, 서쪽과 남쪽 등지에서는 백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부지역과 남서부 지역에 많은 산성들을 축조하였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고구려 산성, 백제산성, 신라산성 등의 삼국시대의 수많은 산성이 있고 아울러 고구려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설화, 만퇴산성과 김서현 장군의 아사와 아들 김유신 장군의 탄생, 옥천군의 양산면의 양산가 노래, 탄현의 치열한 전투의 전설 등이 남아 있어 충북지역이 삼국시대의 격전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주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한결같이 중시했던 지리적 요충으로서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를 「국원경」이라고 하여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고 남진정책을 위한 전진 기지화하려 하였고 신라는 이 지역을 통하여 한강유역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청주지역은 신라와 백제가 각축전을 벌리던 지역으로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청주에 「서원경」을 설치하고 「운천사 사적비」를 건립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원문화는 삼국시대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문화 내지 변경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충북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통합문화로 접근할 때 문화적인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3)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불교문화

김현길(1992, 183-202)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16년(657년)에 충주에 고구려의 「국원경」을 「중원소경」으로 개편하였고 문무왕은 동 17년(677년)에는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새롭게 편입된 영역과 주민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관제 및 지방관제 등을 개편하였고 신문왕 5년(685년)에는 청주에 「서원경」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통일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정치적인 배려만으로는 통일을 이룩하기 힘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단일국가, 단일민족으로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복주민을 포용하고 융화하는 노력으로 삼국이 모두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통일신라시대의 국토의 중앙에 해당되는 중원에 비보사탑으로 중원 「탑평리의 7층 석탑(일명 중앙탑)」을 건립하여 불교로서 국민 사상을 통일하여 제도하려는 점에서 탑평리 7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기념적인 상징탑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와 고려시대에는 중원문화권에는 불교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어 많은 불교 문화재와 문화유적 등이 존재하고 있는 데 유명한 불교의 문화재와 유적지로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의 중원 7층 석탑, 괴산군 미륵리 사지, 청주시 흥덕사지와 운천사지, 용두사의 칠당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영동군의 영국사 등이 있다.

### (4) 조선시대의 선비문화

박종호(1991, 38-51)에 의하면 지역문화는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대별하고 있는 데 정신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로서 지역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정신문화를 지칭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충북지역의 정신적인 전통문화는 삼국시대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양반문화로서 선비정신의 덕목은 학문의 숭상, 충의, 지조, 예절, 문예수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선비정신의 덕목을 구현한 대표적인 충북인은 수없이 많다고 하고 있다.<sup>2)</sup>

그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충북인의 정신문화는 학문숭상, 충의, 지조, 예절, 문화애호 등의 선비정신과 온순, 순박, 후한 인심 등의 양반정신 등을 고취하면서 소극적인 자세, 불분명한 자세에서 탈피

하여 주체의식, 비판정신, 진취성, 적극성, 분명한 태도 등을 개발하도록 하여 개성이 있는 문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문화, 시대와 사회에 조화되는 문화, 지역주민의 합의 문화,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 3.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방향

### 1) 중원문화권의 역사 지리적 배경

송화섭(2000, 90-91)에 의하면 충북지역이 중원문화를 특성화할 수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은 (1) 남한 내륙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의 6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2)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산간지역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한강과 금강의 유역에 평야가 조성되어 있어 수로와 육로의 결절지점으로서 남부내륙의 중심권역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3)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접경지대로서 삼국의 접경문화가 발달되었고, (4) 통일신라시대의 삼국문화의 통합권이 중원문화권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라고 하고 있다.

그는 중원문화권은 국토 중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충주시 「탑평리 7층 석탑」이 상징하고 있는 삼국의 통합문화가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중원문화를 통하여 충북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나아가 국가적 통합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원문화권의 설정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회곤(2000, 92-94)에 의하면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가장 남하하였을 때는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그 후에 신라영토가 되어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으로서 남한강 유역의 통로를 차지하게 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경주를 비롯한 남동부의 신라 부흥세력이나 왜구를 막는 전방 행정기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홍건적의 침략에 밀려 공민왕이 소백산맥을 넘어 올 때 몽진지역의 구실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안동은 경북 북부지역의 생활 중심지로서 수운이 가능한 마지막의 기지로서 북부지역에 소금과 해물을 비롯한 물자를 공급하고 물산을 보내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안동문화권은 퇴계 이황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하여 형성된 경북 북부지역 일대의 문화적 공동체를 묶어 안동문화권으로 불러왔다는 것이다. 즉 안동문화권은 경북 북부지역에 퇴계 학통의 학문과 사상적 신경망과 혈연이나 통혼권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공동체로서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영덕, 의성, 예천, 상주, 문경 등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데 안동문화권은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존재한 일리 없다고 하고 있고 안동은 조선시대 중반 이후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권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은 점차로 주변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안동문화권과 증원문화권은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중복되고 있으나 안동문화권은 조선 중기 이후의 유교문화권의 선비정신문화의 특성이 있으므로 삼국시대의 복합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증원문화권과는 구별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1998, 219-220; 227-302)에 의하면 백제문화권은 백제시대의 문화를 계승하여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 등의 충남 5대 정신을 현대적 개념으로 소화시켜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하여 충남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문화권은 백제왕조의 문화적 특징이 뚜렷하여 증원문화권과는 중복되지 않지만 충남이 추구하고 있는 5대 정신은 증원문화권의 선비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증원문화권에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삼국시대의 산성, 고분군 등의 역사·고고학적 유적과 유물,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불교의 유적과 문화재,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문화유산을 분야별로 연구하고 사실로 검증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홍보전략을

세워 통합문화권으로서의 증원문화의 이미지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2) 증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방향

증원문화권은 구석기 문화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선사문화를 시작으로 마한의 영향을 받았고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쟁탈지역으로서 전쟁문화가 발달하여 산성을 위시한 많은 유물과 유적의 유형문화재, 전쟁사, 전쟁실화, 민속 등의 무형문화재 등을 남기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발달하여 많은 사찰의 불교건축, 불교미술 등의 불교문화가 융성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문화가 발달함으로써 사대부의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선비문화가 발달하여 각지에 서원, 향교, 사우, 누정, 장려문 등의 유교문화재를 남기게 되었고 훌륭한 선비들이 배출하여 국난이 있을 때마다 충효의 선비정신을 고양하였다. 근세에 들어와서 많은 선비들은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 근대적인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증원문화권에 인접한 문화권에는 안동문화권과 백제문화권 등이 있는 데 전자는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유교문화, 후자는 부여, 익산, 공주 등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개발하고 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일원의 신라문화권에서는 신라왕조 중심의 불교문화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인접문화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증원문화권 개발전략은 증원문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선사문화, 삼국의 통합문화, 불교문화,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문화 등을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증원문화권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립할 수 있다:

(1) 충북지역에는 남한강 수계와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많은 매장 문화재, 고인돌, 선돌 등의 선사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데 특히 구석기 유물이 다양과 제천, 청원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선사문화는 왕조중심 문화 이전의 문화이므로 증원문화권의 선사문화가 인접문화권의 왕조중심의 문화권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원문화권 개발의 과

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중원문화는 역사적, 문화적인 요소로 보아 다양한 복합문화가 산재하고 있는 데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통합문화로서 특성화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원문화권의 개발은 통합문화권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정립할 수 있다.

(3) 통합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은 시대적으로 삼국시대의 통합문화에 핵심을 두고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3) 중원문화권의 선비문화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대부의 문화로서 안동문화권과 백제문화권에서도 추구하고 정신문화이다. 그러나 중원문화권은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배경과 남북문화가 교차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 유교문화는 물론 근대문화까지도 통합문화로서 특성화할 수 있다.

(4) 통합문화권으로서의 중원문화권의 개발은 (a) 삼국시대의 통합문화, (b)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불교문화, (c)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와 근대의 서구의 수용문화 등의 선비정신문화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

문화권의 설정은 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과 지역통합력 및 문화적인 정체성 등을 확보하는 유력한 개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송화섭(2000, 90)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의 범위와 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문화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으로 볼 때 중원문화권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북지역을 단일 문화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원에서 충청북도 지방정부에서는 시군별로 차별화하는 문화재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방안

충청북도(1996, 146)에 의하면 (1)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는 체계적인 발굴·보존체계, 문화재 설명문 및 관광 안내판 정비, 문화재 집중분포 지역의

활용, 문화 유적지별 특성화 등에서 미흡하고, (2) 괴산군은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고 청주시와 충주시 등은 문화재 집중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주의 고인쇄 문화유적, 충주의 중원문화 유적, 단양의 선사문화 유적 등은 지역특성과 연계가 부족하고, (3) 또한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및 기념물 등의 문화재의 발굴·전승체계의 미비, 문화자원으로서의 개발 및 활용부족, 문화자원의 특성화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4) 속리문화자원, 국악문화자원, 불교문화자원 등은 지역 이미지와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원문화권은 다른 문화권처럼 왕조중심의 문화가 아닌 통합문화적인 특성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문화적인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개발에서도 특화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차별화된 문화재 개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1) 중원문화권의 이미지 개발의 차별화 방안

중원문화는 선사문화에서 출발하여 삼국시대의 통합문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선비문화 등을 계승·발전해온 복합적인 통합문화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창식(2000, 62)에 의하면 충북의 민속 문화권은 남한강 수계의 충주를 중심축으로 하는 충주 민속권, 금강수계의 청주를 중심축으로 하는 청주 민속권, 남한강 수계와 금강수계의 중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민속권 등으로 대별하고 충북민속의 특성으로는 남한강유역 민속의 복합 지향성, 금강유역 민속의 순환 지향성 등에 맞물려 인성면에서 복합성, 이중 구조성, 선비 지향성, 교류성, 교훈적 대응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충북의 민속문화는 개별 양상으로 보면 영남권, 호남권, 기호권 등의 문화인자가 드러나고 있지만 충북다운 문화는 선비지향의 인성으로서 그것은 금강수계 보다 남한강 수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충북문화권을 크게 충주문화권과 청주문화권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중원문화의 핵심지로서 중원문화의 전통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반면에 후자는 중원문화의 전통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 있다. 충북문화권은 근세에 들어와서 충북문화의 중심이 충주문화에서 청주문화로 옮겨지면서 충주문화는 전통적, 보수적인 문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데 비하여 청주문화는 근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상대적으로 진취적, 개방적인 문화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 도청이 청주로 이전되면서 경부선 철도의 건설과 함께 근대문화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주변이 평야지대로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 청주시가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현대적인 문화를 빠르게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 충주는 역사·문화적인 유적지가 많아 「역사·문화도시」, 충주는 교육과 문화의 전통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문화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충북문화를 통합문화로 본다면 오늘날의 통합문화의 전초지역은 충주시 보다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청주권이 중앙문화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있으므로 청주권은 통합문화의 전초지대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999년의 충청북도의 『21세기 충북발전 계획: 충북 Change 21』에 의하면 충주권은 역사·문화권, 청주권은 국제 교류권 등으로 설정하여 야심이 가득한 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1997년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 100년』(153-159)에 의하면 1996년은 충청북도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100년간 충북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대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충북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데 이러한 기념사업의 내용은 중원문화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발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사업을 참고하여 중원문화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원문화의 이미지 제고의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중원문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으로 중원문화권 도안을 제작한다.

(2) 관찰사 행차재현, 중원문화 연구지의 발간, 중원문화 기념탑 건립, 중원문화기념 CD 타이틀 제작, 중원문화 발전상 홍보전, 중원문화기념 시각디자인 전시회, 중원문화 기념축제 등의 중원문화·역사를 조명하는 이벤트 사업을 개발한다.

(3) 중원문화 기념비, 중원문화 경축 음악회, 중원문화발전 공로자 기념패 증정, 전국 봉화제,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 중원가요 경연대회, 도내일주 봉화제 봉송 등의 도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4) 정기적인 중원문화 국제학술대회, 중원문화 홍보 명예대사 대회, 교류협력 자치단체 무용단 초청공연, 중원의 고유문화의 발굴·보존, 문화관광상품 전시회, 중원문화회관 건립, 중원문화 보존운동 등의 미래창조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 등을 실시한다.

(5) 「충북인의 일 찾기 운동」을 통하여 충북의 역사적 인물의 기념제, 중원문화연구 도민대상을 제정하여 중원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표창하여 중원문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6) 1996년을 중원문화권 개발의 원년으로 지정·선포하여 중원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1996년 중원문화권 개발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현길(1992, 201)에 의하면 중원문화의 특성을 통합문화라고 볼 때 충주문화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유형문화제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삼존상, 중원 고구려비, 탑평리 7층 석탑, 단양의 적성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의 3층 석탑, 제천시 장락리의 7층 모전석탑 등을 들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특히 「탑평리 7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국토의 중앙에 국가의 진호를 위한 비보사상에서 불교를 이용하여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다.

오늘날 청주백화점 서쪽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철당간」은 고려 제4대 광종이 풍수지리상으로 충주는 주성(舟城)이므로 청주발전은 도모하기 위하여 돛대(당간)를 세웠다고 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치만을 생각하여 철당간을 보전하는 운동에 거치지 말고 청주가 교육도시로서 발전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철당간이 청주지역의 교육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주의 흥덕사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발간한 곳으로서 공인되었고 『직지』가 지니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직지』를 상징물로 삼아 「직지 찾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쇄·출판문화의 요람으로서 청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중원문화권의 권역별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를 위한 이미지 제고의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중원문화권을 충주문화권과 청주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중원문화의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지대이므로 충주를 거점지역으로 삼아 충주시는 「역사·문화도시」, 후자에서는 중원문화권의 최상위 중심지로서 중부권 중심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주시를 국제적인 「교육·문화도시」 등으로서 이미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 충주권의 금동불상 삼존상, 적성비 등이 삼국의 문화적 충돌을 대변하는 영토 쟁탈전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탑평리 7층 석탑(일명 중앙탑)은 삼국통일의 산물로서 전자는 「쟁탈과 분렬」을 상징하고 있다면 후자는 삼국통일의 상징탑으로서 「통합」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원문화의 특징을 통합문화로 본다면 「탑평리 7층 석탑」은 충주지역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어 충주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3) 청주권은 용두사의 「철당간」으로 상징되는 교육과 흥덕사의 『직지』로 상징되는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당간의 상징물과 『직지』찾기 운동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청주를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4) 충주문화권의 (a) 제천권은 「의병장 유인석」

을 상징으로 하여 조선말엽 의병활동 중심지로서 「의병문화권」, (b) 단양권은 고구려 은달장군의 전설이 유래되고 있는 「은달산성」을 상징물로 하는 「고구려 문화권」 등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5) 청주문화권의 (a) 보은권은 국보급 불교문화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를 상징물로 삼아 「불교문화권」, (b) 옥천권은 옥천읍의 「관성산성」과 군서면 원전리의 「구진벼루」등을 상징물로 삼는 하는 「나계문화권」, (c) 영동권은 경북, 충북, 전북 등의 삼도에 걸쳐 있는 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를 상징으로 하는 「삼도통합 문화권」 등으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6) 점이문화권의 (a) 음성권은 「무극 6·25 전적비」을 상징으로 하는 「선비정신 문화권」, (b) 괴산권은 「우암 송시열」의 만동묘와 화양서원 등을 상징으로 하는 「유교문화권」, (c) 진천권은 「김유신 장군」의 생가와 길상사 등을 상징물로 하는 「삼국통일정신 문화권」 등으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 2)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

이백훈 외 3명(1997, 20-21)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은 (1) 통합 충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핵심권, (2)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등을 포함하는 중원문화 중심권, (3) 충북의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강원도의 원주시, 경북의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경기도 이천시 등이 9개 시와 충북의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영동군, 옥천군 등 8개 군 등을 포함하는 중원문화 광역권 등 3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1996, 151-153; 276)에 의하면 지역별 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문화관광 권역은 (1) 한반도 통합문화 자원의 충주권, (2) 자연자원, 휴양자연 자원의 수안보·월악권, (3) 고인쇄 출판자원의 청주·청원권, (4) 지역특산 자원의 경기 인접권, (5) 농업/동굴/산악 자원의 제천·단양권, (6) 속리산 불교 문화자원의 보은·괴산권, (7) 삼남생활 문화자원의 옥천·영동권 등 7개의 문화관광 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신형식(1999, 22)에 의하면 충북문화권은 크게 충주문화권과 청주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충주 문화권은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제천군과 단양군, 청주문화권은 청주시와 청원군 등을 중심으로 충북의 보은군, 옥천군, 그리고 충주문화권과 청주문화권의 접이문화권으로서 충북지역의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화권 구분을 참고하여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을 크게 충주문화권, 청주문화권, 접이문화권으로 대별하고 충주문화권을 충주권, 제천권, 단양권, 청주문화권을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하는 청주권, 보은권, 옥천권, 영동권, 접이문화권을 진천권, 음성권, 괴산권 등으로 소구분하여 아문화권별 문화재 개발방안을 살펴보고 아문화권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특화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충주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

① 충주권

충북개발연구원(2001(a), 135-164)에 의하면 충주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충주박물관」을 중원문화권의 중심박물관으로 확대하고 충주 「선사유적 박물관」, 「한국 무술 박물관」, 등을 건립하도록 한다.

(b) 중원 미륵리 사지와 주변의 월악산, 하늘재 등과 연계된 사적지 등을 정비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한다.

(c) 「중원사적공원」을 조성하여 중원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한다.

(d) 강수와 김생 등을 테마로 한 「서예 문화촌」을 건립한다.

(e) 목계나루에 나룻배, 뗏목전시, 체험 배타기, 정기적인 별신굿 공연, 현대시 문학관 건립, 현대시비 공원조성 등의 역사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f) 태권 전수관, 우륵당, 청소년 수련관 등이 있는 호암지 일대를 「중원문화·예술타운」으로 적극 개발한다.

(g) 중원문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중원문화박물관」을 구축한다.

(h) 중원문화권의 자원을 활용한 중원문화권 사적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원문화의 역

사·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i) 새로운 관광환경의 조류를 감안하여 「중원경역사 미니어치」, 등을 개발하여 「제2의 한국 민속촌」으로 개발한다.

또한 1997년의 충청북도 행정담당관실의 『도정백서』(400)에 의하면 충주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인 충주권을 「중원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중원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b) 충주시, 가금면, 상모면 등은 문화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원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므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c) 충주시 가금면 일대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어 중원문화권 개발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은 중원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통합문화지역으로서 삼국시대의 산성,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 걸쳐 건설된 산성과 사찰 등의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복원해야 한다.

(d) 가금면 일대의 삼국통합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탑평리 7층 석탑」에 조성된 「민속박물관」과 「향토자료실」을 확충하며 중앙탑 부근에 가칭 「중원문화재단지」을 조성하고 중원문화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중원 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중원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e) 상모면의 중원 미륵사지는 삼국시대의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삼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미륵사는 경주의 석굴암에 비교되는 신라 말 또는 고려 초에 창건된 석굴사원으로서 미륵사지의 유물, 유구 등의 발굴조사는 이미 완료하였지만 충주호, 월악산, 송계계곡 등과 연계하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중원문화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국민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충주시는 중원역사·문화의 핵심지로서 상기의 문화재 개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읍성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많은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데 충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고 유적을 발굴하여 「충주읍성」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이수봉(1995, 327)에 의하면 「택전」은 삼국시대의 전통무예로서 발전되고 계승되어 민족정신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재로서 충주에서 「택전 수련관」을 건립하여 보급하고 있는 점에서 충주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무형 문화재로서 충주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만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충주권에서는 가칭 「중원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여 중원문화권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탑평리 7층 석탑」을 상징으로 중원문화권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는 「중원문화재 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충주를 명실 공히 「중원 역사·문화도시」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② 제천권

농업진흥공사·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89(a), 264-265) 등에 의하면 제천지역은 산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선사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청풍면 물태리의 「청풍문화재단지」에는 충주호 수몰지구의 문화재 43점과 보물 2점, 지방 유형문화재 9점, 비지정 문화재 32점, 농기구류, 생활용구 등 생활유물 1,621점 등을 일괄 이전하여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1997년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 100년』(61)에 의하면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화서 이항로의 제자 유종교가 봉양면 고전리에서 서당을 짓고 후학을 가르쳤던 곳에는 자양영당이 있는 데 이곳은 한말 척사파 유생들과 의병을 가장 많이 배출하여 제천은 한말 의병의 발원지라고 하고 있다.

농업진흥공사·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89(a), 263), 1982년의 충청북도 공보실의 『문화재지』(925-959) 등에 의하면 제천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제천권은 유인석의 생가, 홍사구의 묘, 이강년의 묘, 칠 의사 충, 김상태 장군의 묘, 남산 격전지 등의 한말 의병활동의 중심지이므로 이들의 묘소를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며 기존의 「의병기념

관」을 더욱 확충하여 역사교육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b) 「청풍문화재단지」에는 중원문화권의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가옥, 누정 등을 재현하고 있고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곳에 「전통건축 박물관」이나 「전통건축 자료관」을 건립하여 건축 전문가는 물론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단지에 민속어촌, 유물 전시관, 망월산성 복원, 지역 특산물 센터 등을 건립하도록 한다.

(c) 박달권에 속하고 있는 박달지구에는 야외 공연장, 박달과 금봉의 사랑 이야기를 재현한 전설비 등을 건립하고 탁사정 지구에 국궁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며 덕동지구에는 수련관, 자연사 박물관 등을 건립하도록 한다.

(d) 월악산지구에는 야외공연장, 피키닉장 등을 설치하고 월악권의 한수면에는 송계리의 마애불상·사자빈사지 석탑, 황강영당 및 수암사, 덕주산성, 명오리의 고가 등의 주요 문화재를 정비하며 복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제천권에서는 「의병장 유인석」을 상징으로 하는 의병활동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의병관련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선비정신을 재현하고 있는 「청풍문화재단지」를 보강하여 명실 공히 선비정신을 계승한 「의병문화권」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③ 단양권

충북경제연구소(1994(a), 390-393)에 의하면 단양권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 군 전체를 국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적극적인 발굴 및 관광자원화 등과 연계되지 않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최고의 선사문화 유적지인 도담금굴과 세계최대의 선사유적지인 수양개유적의 발굴로 인하여 세계적인 선사시대의 역사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단양지역에는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구전의

전설, 설화, 인물과 지역특유의 토속어와 관습 등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어 자료조사와 학술연구의 탐방지역 및 교육장등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단양권의 문화사적지의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적성면의 수양개 선사유적지에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한다.

(b) 단양 「향토사료 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민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c) 소이산 봉수지, 하방리 성지, 가산리 성지, 독락산성, 기촌리 봉수지, 적성산성, 공문성 등의 산성과 봉수지 등을 복원한다.

(d) 영춘면 온달산성(사적 제261호)의 발굴 및 성벽의 보수 및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소백산 등산, 구인사 관광과 연계하여 개발하며 영춘면 하리를 「고구려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한다.

(e) 집단지구의 개발에서 단양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 전설, 설화 등을 소재로 한 건축양식의 개발과 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특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충북개발연구원(1999, 67-77)에 의하면 단양권의 문화관광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a) 단양군 일원의 삼봉, 우탁, 퇴계 등의 역사·인물을 복원하여 형상화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b) 선사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 선사생활 체험지대를 조성한다.

(c) 방곡리의 「도예타운」, 신단양 도전리의 「문화의 집」등을 건립하고 별곡리의 「조각공원」조성, 방곡리 일원의 「창작촌 스튜디오」조성 등의 현대 문화 테마관광을 위한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정삼철(2000, 171-189)에 의하면 영춘면 하리에 위치하고 있는 「온달 국민관광지」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전설로서 삼국시대 고구려의 인물인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배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을 중심 테마로 하여 온달산성, 온달동굴, 구인사 등 주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역사테마공원 형태의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빈약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테마공원에 알맞은 문화관광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단양권에서는 수양개의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하여 확충하고 「온달산성」을 상징으로 「고구려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고구려 민속촌」을 조성함으로써 명실 공히 「구석기문화」와 아울러 「고구려 문화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청주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

① 청주권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하고 있는 청주권은 중부권의 핵심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청주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으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중부권의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1999, 45-46)에 의하면 청주권은 청주·오송·오창·증평을 중심으로 충북발전의 핵으로 볼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오창(첨단산업도시), 증평(건강휴양도시), 오송(생명과학도시), 청주(국제금융도시)가 연계하여 국제교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제교류권으로서 중부권 국제관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고 문화재 개발에서는 청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을 통하여 「서원문화」의 위상을 확립하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충청북도,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94, 154-159)에 의하면 청주광역시권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육성할 수 있는 청주의 특징적인 유적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b) 많은 유적의 발굴을 통하여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올바른 복원과 활용방안을 창출한다.

(c) 청주의 상징물이 되고 있는 우암산의 유적을 발굴하고 사적공원화 한다.

(d) 청주광역시권 문화유적을 구 청주읍성 지역의 제1 중심권, 우암산, 상당공원, 국립 청주박물관을 연결하는 제2 동부권, 흥덕사지, 신봉동, 송정동 백제 고분군, 부모산성을 연결하는 제3 서부권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e) 오송 신도시, 오창-육산의 과학·산업단지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등을 개발하고 증평, 문의 등지의 문화 유적지를 발굴한다.

(f) 문화유적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굴한다.

(g) 「도립박물관」 또는 「시립박물관」과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학습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h) 동고원, 서공원, 중앙공원 등의 공원의 개발로 문화유산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기본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2001, (b))에 의하면 청주권의 문화재 개발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청주읍성과 주변지역을 정비한다.

(b) 우암산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정비한다.

(c) 흥덕사지 주변의 유적을 정비한다.

(d) 상당산성을 발굴하고 「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

(e) 부모산성을 사적 공원화 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한다.

(f) 청주 북부권의 유적을 보존하고 정비한다.

(g) 증평지역의 역사유적을 보존하고 정비한다.

(h) 문의지역의 유적을 보존하고 「민속 문화재단지」를 확충한다.

(i) 청주 동부권의 유적을 정비하고 활용한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9, 345)에 의하면 대청호반의 「문의문화재단지」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미 문산관의 이전, 민가, 양반가의 복원, 유물전시관 등이 완료되었으나 테마별 전시실을 확충하고 사주문, 대장간, 토산품 판매장 등의 건축물을 건립하며 「조선시대 생활박물관」을 건립하여 청주권 문화재단지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서원경 문화권의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국제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주를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b) 흥덕사지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쇄문화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등의 고인쇄 문화유적을 특화하여 개발한다.

(c) 인쇄문화 유산, 출향 문화인 등의 특정의 문화유산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d) 청주시에서는 신봉동의 백제 고분군을 개발

하여 선사시대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남석교의 전통교량을 발굴하여 재현하며, 「인쇄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출판·공예의 도시로 개발한다.

(e) 문화 유적이 비교적 집중하여 분포되고 있는 청원 문화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여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청주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유물전시관, 자동차 영화마을, 청원군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며 전문 공연장을 건립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에서도 청주권에서는 중부권 국제관문으로서의 청주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직지」와 「철당간」 등으로 상징이 되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문화재 개발에서는 청주권의 교육·문화자원을 발굴·복원을 통하여 서원문화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는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② 보은권

보은권의 속리산에는 범주사를 비롯한 많은 국보급 불교 문화재들이 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그리하여 충북경제연구소(1994(b), 274-278)에 의하면 보은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속리산 권역은 속리산 범주사에는 많은 국보급 불교 문화재가 있으므로 사내리 일대에 「불교 문화재단지」를 조성하여 불교 관련 박물관, 학습전시관, 포교당 등의 설치하여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b) 구병산 권역은 (가) 선씨 고가, 개안마을 사직공원, 동학 혁명군 집결지 등의 문화재를 복원·보수하며 정부인 소나무 주변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적 유적지를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속리산 관광객의 방문지로 개발함으로써 역사문화 탐방형의 관광지로 조성하며, (나) 선씨 가옥 주변에 전통음식과 민속주 등을 판매하는 「민속촌」을 건립한다.

(c) 삼년산성 권역은 삼년산성을 비롯하여 각종의 문화재와 종곡·성족리 일대의 동학 농민군 집단 매장지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개발하여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체험·학습형 관광지를 개발한다.

한편 유병렬(2000, 87)에 의하면 보은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내속리면에 석조·금속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각적인 문화관광지를 제공한다.

(b) 외속리면 장내리에 「동학기념 공원」을 조성하여 사적공원화 사업으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 사당 등의 3,000여 평 규모의 「동학교단 본부 대소도」를 복원한다.

(c) 산외면 신정·복암 일대에 「세계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보은권에서는 「속리산 범주사」를 상징으로 사내리에 「불교 문화재단지」를 조성하고 동학정신을 계승함으로써 「불교문화권」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③ 옥천권

옥천권의 문화재 개발은 개별 문화재의 보수와 유적발굴에 한정되어 매우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경제연구소(1994(c), 373)에 의하면 옥천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금강변에 산재하고 있는 고인돌, 선돌 등의 청동기 문화의 홍보방안을 강구한다.

(b) 동이면 청마리의 탑신제, 청산면 교평리의 향기(鄕基) 줄다리기, 다리밧기, 등의 민속자료를 발굴한다.

(c)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였던 관성산성, 서산성, 마상산성, 동평산성, 고리산성 등의 산성을 성곽순례상품으로 패키지화 한다.

(d) 옥천읍 가화리의 관성산성, 군서면 원전리 구진벼루 등 백제 성왕의 역사유적이 남아 있는 곳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e)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옥천읍에 「향토문화센터」와 「나제문화관」을 건립하고 나제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옥천권에서는 옥천읍의 「관성산성」과 군서면의 「구진벼루」등의 나제전투를 상징으로 양산가, 나제축제 등과 관련이 있는 「나제문화재단지」를 조성하고 「나제문화권」

으로서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필요가 있다.

### ④ 영동권

충북경제연구소(1994(d), 184-195)에 의하면 영동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영동읍 부용리의 「민속자료전시관」을 확대·개편하여 미술관, 음악관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지역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도록 한다.

(b) 국악의 성지인 「난계사당」을 더욱 확장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하며 「국악박물관」을 건립하여 난계선생의 역사적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c) 나제전투에서 기원했다고 전해오고 있는 양산가의 본고장인 양산면의 천태산 영국사 및 송호리 일대의 양산팔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적탐방 관광지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

(d) 또한 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삼도봉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삼도문화재단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영동권에서는 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를 상징으로 「삼도문화재단지」를 조성하여 삼도화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경북, 충북, 전북 등의 삼도에 걸친 「삼도통합 문화권」으로서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3) 점이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

#### ① 음성권

한국지역개발학회(1998, 310-311)에 의하면 음성권의 문화유적 보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a) 옥녀봉을 중심으로 음성향교 및 설성공원의 3층 석탑, 5층 모전석탑 등의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음성읍 중심의 동부권역.

(b) 삼성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운곡서원, 사찰 등의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서부권역.

(c) 맹동면의 태교사, 정석오 신도비, 음성 꽃동네, 원남면의 장충범 신도비, 삼룡리의 음성 거북놀이 등의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남부권역.

(d) 감곡면 왕장리의 감곡성당을 비롯하여 심후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재 영정 및 신도비, 김주태 가옥, 서정우 가옥, 양촌 권근의 3대 묘소와 부근의 김홍완 가옥, 팔성리 고가 등의 문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는 감곡면 중심의 북부권역.

또한 충북경제연구소(1994(e), 231)에 의하면 음성권의 문화재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a) 「무극 국민관광단지」에는 6·25 사변 때 최초로 공산군을 물리친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배치하고 전적지 주변의 단조로운 시설을 보강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을 살려 다양성을 가미한 변화가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b) 무극의 전적지를 「문화 사적공원」으로 확대·개발하고 「전쟁박물관」을 건립한다.

(c) 또한 감곡면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역에는 감곡면 왕장리의 감곡성당을 비롯하여 심후재 영정, 김주태 가옥, 서정우 가옥, 양촌 권근의 3대 묘소와 부근의 김홍완 가옥, 팔성리 고가 등의 문화 유적지를 보전하고 정비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음성권에서는 「무극 6.25 전적비」를 상징으로 하는 「무극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전쟁박물관」을 건립하고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선비정신 문화권」을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② 괴산권

괴산권의 문화재는 충북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타군에 비하여 많은 역사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괴산권은 단순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1982년의 충청북도 공보실의 『문화재지(925-950)』에 의하면 괴산권의 문화재들은 주로 칠성면, 청안면, 청천면 등지에 분포하고 있고 있는 데 주요한 문화재로서는 괴산읍의 괴산향교, 충열사, 충민사, 애한정, 청안면의 청안향교, 청안사마소, 청안동헌(안민헌), 칠성면 외사리의 당간지주, 화암서원, 성산리 고가, 사은리 수월정, 청안면의 청안향교, 청안 사마소, 청안동헌, 청천면의 화양서원, 우암 송시열의 만동묘지와 화양서원, 청천리 고가 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괴산권은 유교문화재가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존과 홍보가 미흡하여 문화관광으로서 활용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특히 문화적 가치가 크고 지역주민의 단합과 자긍심 등을 높일 수 있는 무형문화재는 발굴되고 있지 않아서 특색이 있는 무형 문화재의 발굴과 계승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괴산권은 많은 유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괴산권에서는 「우암 송시열」을 상징으로 삼고 화양계곡에는 만동묘지와 화양서원이 있음으로 「유교문화재 단지」를 조성하며 권내의 유교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③ 진천권

진천권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발굴 및 보전되지 못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와 관광개발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진흥공사·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89(b), 225), 충북경제연구소(1993, 218-239; 1994(f), 227) 등에 의하면 진천권의 문화재 개발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a) 진천읍 일대에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비롯하여 용화사 석불입상, 진천향교, 길상사, 이거이묘, 연곡리 석비(백비), 이상설 선생 생가, 충간공남지 묘소, 대모산성 등의 다수의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있음으로 이 지역을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고 독립기념관-진천-충주권 등으로 연결되는 중원역사문화 관광지로 광역화한다.

(b) 진천읍은 김유신 장군, 이상설 등의 호국정신과 통일여지의 전승을 위하여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충혼탑 공원을 조성하며 전통문화재 단지를 개발하여 충효사상을 선양하도록 한다.

(c) 만리산성은 삼국시대의 역사유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문화재이므로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고 김유신 장군을 모신 길상사는 역사성이 풍부한 문화재이므로 부근에 「통일정신 문화재단지」를 조성하고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통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d) 문백면은 송강사, 농다리(지방 유형문화재 제28호)등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중심

지로 개발한다.

(e) 이월면은 노은영당, 신헌 고택, 신갑 영정, 왜가리 도래지, 백제 토기요지, 사곡리의 마애여래 입상, 신화국 묘지 등의 문화재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를 최대한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민속마을, 전통문화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전통문화단지에는 민속공연장, 무형 문화재 강의실,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문화」중심지로 개발한다.

이러한 문화재 개발방안에서도 진천권에서는 「김유신 장군」의 생가와 길상사 등으로 상징되는 충의정신과 선비문화가 발달하고 있으므로 「삼국통일 문화재단지」를 조성하여 통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삼국통일정신 문화권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5. 종합고찰 및 결론

중원문화권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지 개발 방안은 1997년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 1000년』의 「충북 100년 기념사업」이 표본이 되고 있고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되고 있음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중원문화권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중원문화권은 3대 문화권과 10대 아문화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아문화권의 핵심적인 상징적 문화재를 중심으로 아문화권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 충주문화권: (a) 충주권: 역사·문화권(탑평리 7층 석탑), (b) 제천권: 의병문화권(의병장 유인석), (c) 단양권: 고구려 문화권(온달산성).

(2) 청주문화권: (a) 청주권: 교육·문화권(직지와 철당간), (b) 보은권: 불 문화권(속리산 법주사), (c) 옥천권: 나제문화권(나제전투), (d) 영동권: 삼도통합 문화권(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

(3) 점이문화권: (a) 음성권: 선비정신 문화권(무극 6.25사면 전적비), (b) 피산권: 유교문화권(우암 송시열), (c) 진천권: 삼국통일정신 문화권(김유신 장군).

이러한 아문화권의 이미지 차별화 전략에 입각

하여 아문화권의 문화재를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중원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은 충주권으로서 「탑평리 7층 석탑」을 상징으로 충주권을 「역사·문화도시」로 개발한다:

(a) 충주권은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으로서 중원문화권의 「중원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고 「탑평리 7층 석탑」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재 단지」를 확충하여 중원문화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고 충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과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b) 제천권에서는 「의병장 유인석」을 상징으로 삼아 의병문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의병 기념관」을 확충하며 의병관련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c) 단양권에서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의 「온달산성」을 상징물로 삼아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고구려 민속촌」을 건립하며 「구석기 문화」와 고구려 문화 등과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2) 청주권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청주발전의 상징으로 「철당간」등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교육·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원문화권의 「교육·문화도시」로 개발한다:

(a) 청주권은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한국인쇄박물관」으로 승격시키며 청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의 「인쇄출판·공예단지」를 조성하고 청원군의 「문의문화재단지」를 확대·개편하도록 한다.

(b) 보은권은 「속리산 법주사」를 상징물로 삼아 사내리 지역에 「불교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고 동학도지에 「동학공원」을 조성하며 불교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c) 옥천권은 옥천읍의 「관성산성」과 군서면의 「구진벼루」등을 상징물로 삼아 나제전투, 양산가 등과 관련이 있는 「나제문화재단지」를 조성하고 「나제문화권」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d) 영동권은 삼도문화의 통합지역으로서 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를 상징물로 삼고 삼도문화



##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와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삼도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고 삼도생활문화 교육장을 개설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 점이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a) 음성권은 「무극 6·25 전적비」를 상징으로 「무극 사직공원」을 조성하고 「전쟁박물관」을 건립하며 전쟁문화와 선비정신문화 등과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b) 괴산권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화양계곡의 「우암 송시열」유적지를 개발하여 「유교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고 관내의 유교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c) 진천권은 김유신 장군의 충의정신문화와 선비문화 등이 발달하고 있으므로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위업과 선비정신 문화 등을 결합한 통일정신문화 관련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통일정신 문화재 단지」를 조성하여 통일정신 교육장을 건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원문화권은 (1) 구석기 문화의 보고, (2) 삼국시대의 통합문화, (3)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불교문화, (4)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5) 근세 이후의 수용된 서구문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통합문화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문화권별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중원문화권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중원문화는 1970년 이후의 금강댐·충주댐·중부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따른 유적지 개발, 1970년대 말의 「단성 적성비」와 「중원 고구려비」, 1980년대 초기의 청주 「운천사 사적비」 등의 발견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원문화권은 충주와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명명되었지만 전국 고고학계에서는 처음부터 한강과 금강유역을 포함시켰고 미술사 분야, 건축예술에 대한 경우에는 충주일원을 벗어나 충북 일원과 영주, 원주 등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국 5대 문화권 개발계획 하에 이루어진 「중원문화권 유적분포도」에서는 충북 이외에 경기도 남동부, 강원도 남서부, 경북의 북서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1995년의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1996년의 「중원문화권 국제학술대회」, 2001년의 「통일시

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개발의 차별화 전략」등의 중원문화 학술회의를 거치면서 문화권의 범위와 성격이 정립되고 있고 개발에 대한 관심도 고무되고 있다. 신형식(2001, 1-6)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은 충주와 청주를 축으로 하는 충북지구의 문화로서 경기와 강원도의 남부와 경북의 북부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충청북도의 문화재 개발의 차원에서 중원문화권을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충북일원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 2) 1997년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 100년』(153-159)에 의하면 198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가 충청도로부터 분리되었고 1996년에는 지난 100년간 충북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대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충북인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기념사업의 내용은 중원문화의 이미지 개발사업의 표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이벤트 활성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3) 박종호(1991, 38-41), 1992년의 『충북도지(상)』(2463-2712), 1997년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 100년』(10-156)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한 바에 의하면 선비정신의 덕목을 구현한 대표적인 충북인을 보면 학문승상에 강수, 송시열, 김수온, 충의에 김유신, 남이, 임경업, 조현, 강감찬, 송상현, 신립, 애국지사(3·1운동의 주동자인 손병희·신석구·신홍식·권동진·권병덕과 독립운동가인 신채호·신규식·이상설), 의병장(제천의 권용상, 단양의 김규철, 중원의 백남규, 제원의 유인석, 이강년, 청원의 한봉수, 영동의 장지현), 지조에 김문기, 박맹년, 예절에 효행자(충주 26명, 청주 35명, 제천 5명, 청원 22명, 보은 6명, 괴산 48명, 단양 7명, 음성 12명, 옥천 40명, 제원 3명, 진천 6명, 영동 63명)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악성(박연, 우득), 문인(정지용, 조명희, 김기진, 오장환, 권태웅, 이무영), 학자(권근, 정인지, 정철) 등을 들 수 있다.

## 文獻

[저서]

- 충청북도 공보실, 1982, 문화재지, 충청북도.  
 김현길, 1984,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청주시.  
 충주공업전문대학 박물관, 1992, 중원경과 중앙탑, 수서원.  
 충청북도지 편찬 위원회, 1992, 충북도지(상), 충청북도.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1997, 청주시지(상), 청주시.  
 충북개발연구원, 1997, 충북 100년, 충청북도.  
 충청북도 행정담당관실, 1997, 도정백서, 충청북도.

[논문]

박종호, 1991, 충북인 정신문화의 미래위상, 중원지역발전연구(3), 한국 중원지역발전학회, 31-53.

김현길, 1992, 중앙탑의 건립 연유에 대한 연구, 『중원경과 중앙탑』, 충주공업전문대학 박물관, 183-202.

길경택, 1993, 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과 그 운영의 문제, 충북향토문화(4), 충북 향토사연구협의회, 3-16.

이용조, 1995, 중원지역의 선사문화,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연구총서(8),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15-59.

김영진, 1995, 중원문화권의 범위와 특성,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연구총서(8),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315.

이수봉, 1995, 「제6 주제」토론회,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연구총서(8),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323-324.

신형식, 1995, 「제3 주제」토론회,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연구총서(8),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167-168.

이백훈 외 3명, 1997, 중원·충주지역 문화발전에 관한 연구, 중원지역발전연구(6), 학회창립 10주년 기념, 한국중원지역발전학회, 20-21.

신형식, 1999, 충주의 역사적 위상, 중원문화(12), 충주문화원, 20-25.

송화섭, 2000, 「종합토론 1」, 충북과 중원문화, 충북학(2),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90-91.

김희곤, 2000, 「종합토론 2」, 충북과 중원문화, 충북학(2),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92-94.

유병렬, 2000, 속리산 국립공원의 관광객 속성의 변화와 개발방안의 모색,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박상운, 2000, 충북의 산성에 관한 역사 지리적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경식, 2000, 충북지역 백제산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창식, 2000, 충북지역의 민속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2),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45-62.

정삼철, 2000, 단양 온달국민 관광지 조성경위와 개선방향, 충북학(2),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171-189.

[학술논문 발표 초록집]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5,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연구총서(8),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2001, 『통일시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개발의 차별화 전략』, 중원문화총서(24),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보고서]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 청주 흥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고적조사보고(8), 청주대학교.

농업진흥공사·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a), 제원군 지역 종합개발계획-계획의 기본구상(1991-1995), 제원군.

농업진흥공사·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b), 진천군 지역 종합개발계획-계획의 기본구상(1991-1995), 진천군.

충북경제연구소, 1993, 진천군 장기개발계획-중간보고서, 진천군.

충청북도,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4, 청주광역시권 개발 기본계획, 청주시.

충북경제연구소, 1994(a),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단양군.

충북경제연구소, 1994(b),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보은군.

충북경제연구소, 1994(c), 21세기 옥천건설을 위한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옥천군.

충북경제연구소, 1994(d),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안(1992-2001), 영동군.

충북경제연구소, 1994(e),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1992-2001), 음성군.

충북경제연구소, 1994(f), 21세기 살기 좋은 진천군

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설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진천군.  
충청북도, 1996, 21세기 문화가 충북을 바꾼다: 충청북도 문화비전 21 중장기계획.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6, 청주 흥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고적조사연구(8), 청주대학교.  
한국지역개발학회, 1998, 21세기 음성군 장기발전 구상과 성장관리전략(1998-2011), 음성군.  
국토개발연구원, 1998, 제4차 국토계획 관련 시·도별 장기계획구상 심포지움, 21세기 국토포럼.  
충청북도, 1999, 21세기 충북발전계획: 충북 Change 21, 충청북도.

충북개발연구원, 1999, 21세기 푸른 관광단양 장기 종합발전계획(1999-2020), 단양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청원군 장기종합 개발계획(1999-2018), 청원군.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요지 공고내용.  
충북개발연구원, 2001(a),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안), 충주시.  
충북개발연구원, 2001(b),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충주시.

(접수 : 2003. 11. 20, 채택 : 2004. 1. 16)